

아동 서비스론

호리카와 테루요 편자·고향옥 옮김, 이연옥 감수 | 시륙배판(188×256)
무선, 244쪽 | 15,000원 | 사서·어린이 도서관 사서·문헌정보학 전공자



“아동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추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더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아동 서비스를 전개해나가야 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상황에 주목하면서 ‘아동 서비스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을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문헌정보학은 실천과 이론이 융합된 학문이지만 그중에서도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문헌정보학은 그 느낌이 더 강하다. 실천이 없으면 이론도 없는 법이다. 저마다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여 이 책을 쓴 의의는 매우 크다고 자부한다.”

— ‘머리말’에서(편저자 호리카와 테루요)

“이 책은 체계적인 아동 담당 사서 양성이라는 일본 도서관계의 염원을 담아 아동 사서 교육에 참고할 텍스트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아동 서비스 담당 사서의 역할을 비롯한 아동 서비스의 오늘을 고민하고 그 미래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경험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아동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 또한 아동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한눈에 들어오게 구성했으므로 현장의 아동 서비스 지침으로도 손색이 없다.”

— ‘추천의 말’에서(감수자 이연옥)

출간 의의

아동 서비스는 공공 도서관이 어린이를 위해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다. 책은 어린이의 다양한 정신적, 정서적 체험을 북돋우고 감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다. 어린 시절 책을 만나 독서의 기쁨을 체험하여 그것을 몸에 익히면 어른이 돼서도 삶을 책과 함께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다. 아동 서비스는 바로 이와 같은 의의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어린이와 책을 이어주는 공공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시설·제도’와 ‘어린이를 위한 자료(장서 및 멀티미디어 등)’는 물론이고 잘 훈련된 사서가 필요하다. 수업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시설·제도, 어떤 자료가 준비돼 있더라도 실제 서비스의 질은 어린이를 직접 상대하는 사서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다. 현장과 학계는 이미 이에 대한 자각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 참고용, 교육용 텍스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수요와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나왔다.

글쓴이들은 모두 현직 문헌정보학자와 사서들로 아동 서비스의 전체상을 포괄하되 간결한 학습용 텍스트를 쓰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책을 썼다. 문단마다 현장 경험과 이론 연구를 함께 닦아온 실제 경험이 녹아 있으며, 그에 따라 의의·개요·실제 업무·사례·참고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경험에서 나온 짜임새야말로 이 책의 특징이고 장점이다. 연구자와 현장 실무자의 협력으로 나온 이 텍스트는 아동 서비스를 모색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책 속에서

“대부분의 어린이에게 공공 도서관 이용은 아마 공공시설과 관계를 맺는 첫 경험일 것이다. 어린이는 도서관이라는 공공의 장에서 공동의 책을 이용함으로써 공공성을 몸에 익히게 된다. 그리고 공공 도서관의 기능을 알고 편리함을 몸에 익힌 그들은 성장해서도 공공 도서관을 계속 평생 학습의 거점으로 이용하며 도서관을 잘 이해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출발점에 아동 서비스가 있다. 또한 어린이가 공공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그 주변의 어른들까지 도서관 이용자가 되게 하여 이들을 공공 도서관의 든든한 지원자로 바꿀 수 있다. 이같이 도서관의 보급·진흥이라는 점에서도 아동 서비스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제1장 ‘아동 서비스의 개요·위상 정립’에서

“쉽게 즐기는 미디어가 넘쳐나는 요즘, ‘독서는 중요하다’라는 신념이나 ‘좋은 책을 어린이에게’라는 기개만으로 어린이를 책의 세계로 끌어들이기는 어렵다. 지금 아동 담당 사서에게 요구되는 것은 질 높고 재미있는 책을 고를 수 있는 선택안, 그리고 그 매력을 정확하게 어린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제2장 ‘아동 자료의 유형’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은 자료 제공에 있으며 아동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다. [...] 사서는 대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어린이가 이용하는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도서관에 갖는 흥미와 관심도 알 수 있다. 어린이 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어린이 독서에 대한 사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느껴 신뢰와 기대를 품을 것이다. 이런 순환이 상호 이해를 낳고 도서관 서비스를 유효하게 한다.” - 제10장 ‘자료 제공 서비스’에서

“**질문과 답변의 기록:**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어린이의 질문은 어른과 달라서 그다지 광범위하지 않다. 오히려 숙제 등은 학교 커리큘럼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해온 것을 집계해보면 공통되는 질문을 찾을 수 있다. 학습 주제명이라도 분류해두면 이 기록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2장 ‘참고 봉사’에서

“무엇을 읽고 싶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도서관에 오는 어른과 달리 그저 막연하게 재미있는 것, 정신적인 모험을 찾아 서가에 다가가는 어린이에게는 자연히 사서가 해야 할 역할도 달라진다. [...] 단지 정보 요구 면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폭넓게 응대하기 위해서는 사서 자신도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여 어린이와 마주해야 할 것이다. [...] 아무리 어린이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응을 한다 해도 전문 지식이 없으면 어린이와 책을 만나게 할 수 없다. 과내의 자료를 즉석에서 소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롭게 출판된 자료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그 가치를 판단해두어야 한다. 사서는 자료를 바르게 평가하고 선택하는 눈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한다.”

- ‘끝으로: 아동 담당 사서란’(option)에서

“우리들은 어린이에게 ‘책’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고, ‘책의 세계’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이토 아케미의 강연_‘끝으로: 아동 담당 사서란’(option)에서 재인용

구성

아동 서비스의 의의

- 제1장 아동 서비스의 개요·위상 정립
- option 아동 서비스를 넓은 시각으로 받아들이자

아동 자료의 특색과 선택

- 제2장 아동 자료의 유형
- 제3장 그림책
- 제4장 아동문학(1) - 창작 아동문학
- 제5장 아동문학(2) - 옛이야기, 그 밖의 전승문학, 시
- 제6장 논픽션, 지식 책, 참고 도서
- 제7장 아동 자료의 출판과 유통
- option 아동 자료를 알기 위해
- option 어린이 도서관 사서가 처음 만나는 이론서

아동 장서의 구성과 관리

- 제8장 아동 장서의 형성과 평가
- 제9장 아동 자료의 정리
- option 아동 자료의 수집 방침

아동 서비스 업무

- 제10장 자료 제공 서비스
- 제11장 플로어 서비스
- 제12장 참고 봉사
- 제13장 집회·행사
- 제14장 전시·PR
- option 대출 서비스 안내
- option 이런 참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 option 영·유아 서비스

아동 서비스의 방법과 기술

- 제15장 읽어주기와 스토리텔링
- 제16장 북 토크
- 제17장 서평·권장 도서 목록
- option 이야기 모임을 갖는 방법
- option 아동 서비스의 방법·기술에 관한 참고 자료

아동 서비스의 전개

- 제18장 아동 서비스의 운영
- 제19장 아동을 위한 시설과 설비
- 제20장 아동 서비스 담당자의 역할과 지식
- option 아동 서비스의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 option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 option 현립 도서관과 시립 도서관
- option 국제어린이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제21장 청소년 서비스의 개요

제22장 청소년 자료의 특색

option 청소년의 참여가 성공의 열쇠

option 청소년 서비스 조사 결과에서

각종 기관과의 연계·협력

제23장 학교·학교 도서관과의 연계와 협력

제24장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

제25장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option 어린이집의 1세아도 즐기는 동요·읽어주기

option 후추 시의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계획 책정

option 어린이 독서 추진에 관한 법률

option 끝으로-아동 서비스 담당 사서란

편저자 · 집필자 · 옮긴이 · 감수자 소개

편저자 호리카와 테루요堀川照代는 시마네현립 시마네여자단기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학교 도서관 및 아동 서비스 문제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집필자

네기시 다카코根岸貴子(어린이책연구소), 사토 료코佐藤涼子(비영리조직도서관학교),
다쓰미 요시유키辰巳義幸(오사카예술대학), 다케나카 요시코竹中淑子(어린이책연구소)
한다 유지半田雄二(도쿄도립고토도서관, 다마도서관, 고마에시립중앙도서관 등에서 근무)

옮긴이

고향옥은 동덕여대 및 나고야대학에서 일문학을 공부했다. 옮긴 책으로 『나는 입으로 걷는다』 『우주의 고아』 『바람을 닮은 아이』 『열까지 썰 줄 아는 아기염소』 『구리와 구라의 헤엄치기』 『집 나가자 야호야호!』 『바이바이』 『응급 처치』 『프라이팬 할아버지』 등이 있다.

감수자

이연옥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서관학석사, 문헌정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위원,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용인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자문위원,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독서의 사회교육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학교 독서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어린이서비스의 전문성 개발 방안에 관한 모색」 등이 있다.



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513-8 | ALMA@MUNHAK.COM

ISBN 978-89-92525-05-3 (93020) | 출간일 2006년 5월 28일

담당 고동균 차장 031-955-3564(직통), 016-9222-1911